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 시기구분과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

-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를 대상으로* -

남윤섭**, 임화순***

- I. 서론
- II. 관광지 개발 시기구분의 배경
- III.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시기 구분
- IV. 개발시기별 입지변화 분석
- V. 결론

국문요약

제주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관광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관광활성화 정책과 함께 관광지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관광지의 개발에 있어 입지선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취약하고, 입지변화에 대한 실제적 검증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대상자들의 의사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입지 결정이 진행되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를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관광지 개발시기를 구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된 제주만의 독특한 구분인 중산간지역(표고 200m에서 600m 사이 지역)의 입지를 기준으로 입지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시기를 발아기(發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재정리하여 요약한 연구임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 : xiaonan79@naver.com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limhs63@dreamwiz.com

芽期:1982~1997년), 착근기(着根期:1998~2004년), 성장기(成長期:2005~2008년), 고도집적기(高度集積期:2009~2012년 현재)로 구분하였다. 발아기, 착근기, 성장기, 고도집적기의 시기구분에 맞추어 입지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는 초창기에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해안인접지역에 개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점차 중산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관광지, 개발시기구분, 입지변화, 제주특별자치도

I. 서론

대한민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확대되고 1980년대를 통해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여가사회의 대중화도 진전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민의 관광도 급성장하게 되었다¹⁾. 관광여행의 급성장에 따라 관광활동의 대상인 관광지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특히 제주지역은 관광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수많은 관광지들이 개발되어오기 때문에 관광지의 개발에 있어 입지변화에 대해 실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을 반영한 조례들이 제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관광지의 개발시기를 구분하고, 그 관광지들의 입지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의 공간적 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처음 설립된 1982년 이후 31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광지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였는가를 밝힌 연

1) 任和淳, 『近代韓國における温泉觀光地の發達過程に關する史的研究』, 東京工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를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관광지 개발시기를 구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²⁾로 지정된 제주만의 독특한 구분인 중산간지역(표고 200m에서 600m 사이 지역)의 입지를 기준으로 입지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개발시기의 구분은 연구대상지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과정을 겪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분석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시기별로 여러 개의 횡단면을 상정해 분석하는 방법인 누적 횡단면법(synchronic cross-section method)³⁾ 등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발시기를 구분하여 시기별 범위를 선정해 줌으로써 이후 시계열적 분석을 하는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입지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간적인 범위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입지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입지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입지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나 개발행위 활성화 정책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II. 관광지 개발 시기구분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1) 관광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관광지는 국가, 섬, 도시와 같이 구획이 잘 정리된 지역으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4조 1항 관련 [별표1]에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지하수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제주만의 독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2011. 종단면법에서 기대되는 정도의 연속성은 담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의 전이과정에서 초래되는 지리적 변동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로 간주된다⁴⁾. 그러나 학술적 개념에서 ‘관광지는 관광객이 관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 정의된다⁵⁾. 즉, 관광객이라는 주체와 관광동기라는 심리적 목적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다.

관광지는 물리적 환경의 매력성이 중요하며, 입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영구적이고, 대부분 어떠한 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⁶⁾. 그러나 역사문화에 대한 유적과 건축물, 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 외에 테마파크(theme park), 미술관(arts complex), 종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등도 현대적 관광지에 해당된다⁷⁾.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1993)⁸⁾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s)을 관광활동이 벌어지는 관광지로 인식하면서 자연유산관광지(natural sites), 역사유산관광지(historic sites), 문화유산관광지(cultural sites)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관광지는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인위적으로 조성된 장소(site)’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자원에 기반한 관광지와 자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위적 공간연출에 의해 인공자원을 형성한 관광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는 실내에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건축물 형태로 조성되어 관람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관광지를 말한다⁹⁾. 여러 유형의 관광지 중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입지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는 인공자원형 관광지이며, 최근 제주지역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시

- 4) Hall, C. M., *Tourism planning: Policies, processes, relationships*, London : Prentice - Hall, Inc., 2000.
- 5) 정석중·이미혜, 『관광개발론』, 서울 : 대왕사, 2002.
- 6) Mill Robert C. and Alastair M. Morrison, *The Tourism system - second edition -*, Prentice - Hall, Inc., 1992.
- 7) Alan Fyall, Brian Garrod, Anna Leask, and Stephen Wanhill, *Managing visitor attractions, -second edition -*, ELSEVIER Ltd., 2008.
- 8) ICOMOS, *Tourism at World Heritage cultural sites: The Site Manager's Handbook, - second edition -*, 1993.
- 9) 문화관광부,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2007.

설관람형 관광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필요성이 있다.

<표 1> 보유자원 및 이용형태에 의한 관광지 유형분류

보유자원 \ 이용형태		위락·체험	관람	휴양
자연 자원	산악형	산악체험형	산악관람형	산악휴양형
	내수면형	내수면체험형	내수면관람형	-
	해안형	해안체험형	해안관람형	-
	동굴형	-	동굴관람형	-
	온천형	온천체험형	-	온천휴양형
인문 자원	문화유적형	문화유적체험형	문화유적관람형	문화유적휴양형
인공 자원	단일공간형	단일공간체험형	단일공간관람형	단일공간휴양형
	단일시설형	단일시설체험형	단일시설관람형	단일시설휴양형
	복합형	-	-	복합휴양형

* 출처 : 문화관광부,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2007.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관광학분야에서는 관광지의 입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되고 체계적인 이론에 대한 학문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입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지변화에 대한 연구는 산업체가 공간에서 어떤식으로 입지하여 입지패턴이 변화하는 지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입지이론이 농업, 공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입지변화의 선행연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체를 대상으로 거리범위를 정하여 입지의 변화패턴을 분석한 연구¹⁰⁾, 영화산업체의 위치를 행정구역 상으로 구분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¹¹⁾, 산업단지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시기별 산업단지 지정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¹²⁾, 대도시지

10) 김태환, 「자동차 부품산업의 공간적 재구조화와 입지패턴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2(3), 2007.
 11) 주성재,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공간적 집적 특성 :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로서 서울 강남지역의 등장」, 『대한지리학회지』, 41(3), 2006.
 12) 이삼수·이현주·김태균·김선우, 「산업단지 정책 및 입지변화 특성 고찰」, 『한국지

역의 기업본사의 입지가 변화하는 패턴과 이전동향을 분석한 연구¹³⁾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입지변화의 선행연구는 연구대상이 시기별로 입지가 변화하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구 방법적인 측면과 유사하지만, 관광지라는 대상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연구대상지의 특징을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시기 구분에 관한 연구는 여러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사적 연구를 진행할 경우 시간적 분석단위를 구분짓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한국소년운동사를 역사적 사건에 의해 시기구분한 연구¹⁴⁾, 중국현대문학의 흐름에 대해 시기를 구분한 연구¹⁵⁾, 근대성이라는 기준을 여가연구의 시기를 구분한 연구¹⁶⁾ 등이 있다.

기존의 시기구분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연속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현상을 시기적으로 구분짓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의 기준이 아닌 관광지의 설립 특성, 주요개발계획, 법제도의 변화의 세 가지 기준으로 맞추어서 구분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2.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배경

1) 주요관광개발계획 진행과정

제주도 개발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전에도 국가 혹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논의가 있었으나¹⁷⁾,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관광관련 단체 및 사업체가 설립되었고, 1964년에 제주도에

역개발학회지』, 25(4), 2013.

13) 양계섭·김정원, 「서울 대도시권 기업본사 입지변화와 이전동향 분석 : 1990 - 2003 - 3000대 기업본사를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8(2), 2007.

14)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의 시기구분론」, 『역사와 실학』 13, 1999.

15) 유세중, 「중국현대문학사 시기구분론」, 『중국학연구』, 6, 1991.

16) 최석호 「여가와 관광연구를 위한 시기구분」,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7) 송재호, 『제주관광의 이해』, 도서출판 각, 2002.

관광운수과가 설치되어 관광행정을 전담하게 되어¹⁸⁾,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광관련 전담 조직과 법정계획 등을 토대로 제주도의 관광지가 개발되게 되었다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관광개발계획의 전개과정

수립 년도	계획명칭	계획 수립 기관	목표 및 주요내용
1964	제주도건설종합계획	건설부	관광과 1차 산업의 병행발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1966	제주도특정지역계획	건설부	부존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격차 시정 산업, 수자원, 교통, 관광개발 기초조사 실시
1971	제주도종합개발10개년계획	건설부	관광자원의 적극개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토지이용의 계획화
1973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	청와대 관광 기획단	국제수준의 관광지조성 외래관광객 유치로 외화수입 증대
1985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건설부	관광수요에 대한 대처로 지역경제기반 강화와 외화수입증대 생산기반 확충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소득원 다변화 3개 관광단지 및 27개 관광지구 개발
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도	기존 관광단지·지구 재조정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 지구 지정방식을 기초로 개별허가방식의 일부수용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 국가개방거점의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 자연·문화 기반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
2009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 관광·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6차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2011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 발전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 복지향상

* 출처 : 송재호(2002), 『제주관광의 이해』, 도서출판 각, 2002,
김영표, 『관광지 수명주기 연구 - 1962~2009년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18) 부단근, 『제주지역개발사』, 제주발전연구원, 2012.

2) 관련법규 변화과정

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되었다. 1961년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을 1970년대 『관광사업법』과 『관광기본법』으로 분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통합하여 관광진흥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관광진흥법이 되었다¹⁹⁾.

<표 3>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객이용시설업 개편

연도	법명	관광객이용시설업 개편 내용
1975	관광사업법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기념품판매업, 골프장업, 일반유희음식점영업, 유희전문음식점영업, 특수유희음식점영업, 관광사진업, 종합휴양업
1987	관광진흥법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 신설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칭)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 2007. 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자 재구성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1년 제정(제4410호)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 후 22차에 걸친 법개정과 13차에 걸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법 제정 초기 운영주체에 따라 박물관은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민간참여에 의한 작은 규모의 특색 있는 전문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시행령 2차 개정을 통하여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 소장자료와 시설 규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등록요건을 차등화 하여, 2종에 해당하는 유물관, 사료관, 전시관, 자료관 등의 등록이 시행되었다. 1999년 법 7차 개정을 통하여

¹⁹⁾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칭)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 2007.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육성 및 지원의 무화가 시행²⁰⁾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의 박물관·미술관 사업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10월 정부발의로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해온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의 행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관련업무에 대한 시·도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시행시기는 2004년 1월 1일 부트로 함, 10차 개정에 반영하였고, 시·도지사는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²¹⁾).

<표 4> 7차 개정 전후 적용범위 및 등록요건 비교

7차 개정 이전 적용범위/등록요건	7차 개정 이후 적용범위/등록요건
- 제정 당시, 1종과 2종의 구분없이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만을 대상 - 1995년 12월 개정 시, 1종/2종 박물관 구분도입(등록요건 차등화) * 1종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2종(유물관, 사료관, 전시관, 자료관)	-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 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 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예술관· 문화의집·야외전시공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에도 적용(2종 박물관의 확대적용) * 종합박물관 / 전문박물관 정의 조항 삭제(등록요건에서는 적용)

*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2012.

③ 과학관육성법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1년 『과학관육성법』을 제정하였다. 법에 의하여 2003년 제1차 ‘과학기술 문화 창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 제2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관 육성을 도모하였다.

과학관육성법은 1991년 제정되고, 1992년 7월 시행된 이래 총 13차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2012.

21) 앞의 글, 2012.

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과학관육성법 상 관련용어의 변경에 그치고 있으며, 과학관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없었다²²⁾.

3.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과정

1) 관리주체별 개발과정

제주지역에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69년 민속학자 진성기 용에 의해 제주민속박물관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제주민속박물관은 제주시 일도2동(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자리)에 위치하던 것이 1982년 현재 위치인 제주시 삼양3동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박물관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한 등록이 불가능 하였다. 실제 국립박물관마저도 정부조직법 제4조 “정부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국립중앙박물관직제’라는 것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었다²³⁾.

당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박물관은 총 79개소 였고, 나머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법제정 이전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박물관은 제주민속박물관(사립)과 제주대학교박물관(대학)이 해당된다.

<표 5> 박물관법 제정 이전의 박물관 개소수

구분	개소수	대표박물관
국립박물관	8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등
공립박물관	6	부산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광주시립박물관 등
사립박물관	14	제주민속박물관, 호암미술관, 간송미술관 등
대학박물관	51	서울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등

*출처 : 이창희, 이창희, 『한국의 박물관 현황과 박물관법』, 『입법조사월보』 140호, 1984. 의 연구(문공부, 국회제출자료 ; 재인용)를 토대로 재구성

1984년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이 개장하면서부터 단일시설관람형 관광

22)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행정 개편(안) 연구』, 2011.

23) 이창희, 『한국의 박물관 현황과 박물관법』, 『입법조사월보』 140호, 1984.

지는 법적인 등록을 시행하여 관리되었다.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에서 개발한 공립박물관으로 박물관법(1984년 당시)에 의해 등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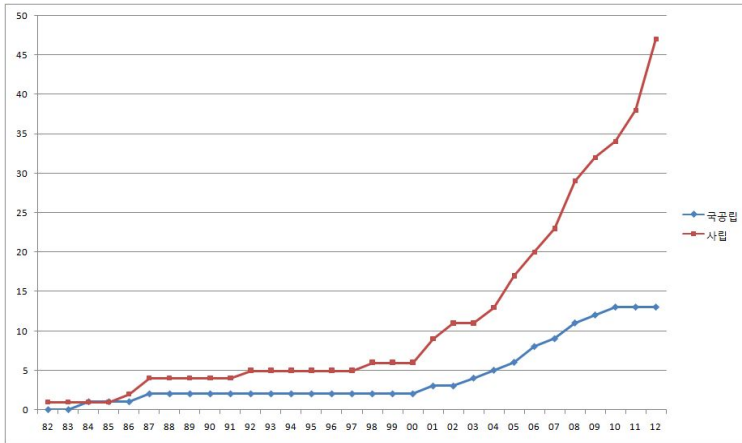
1980년대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개발이 정체되어 있으나, 1990년대 후반을 지나 2000년대부터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전까지 국공립 관광지와 사립 관광지는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립관광지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반하여 국공립 관광지는 정체 또는 소수만 개발되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2001년 국공립관광지의 비중이 33.3% 이었던 것에 비하면 2000년대 이후 공공에서의 개발보다는 민간영역에서의 관광개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6년 이후에는 국공립관광지와 사립관광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개발주체가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완전하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국공립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는 13개소로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는 47개소로 78.3%를 차지해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경우 초창기 관광개발을 주도하면서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후 민간영역에서의 접근이 증가하면서 개발이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2) 등록업종별 개발과정

등록업종별 개발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광진흥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학관육성법에 등록된 등록 명칭을 기준으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수족관, 과학관으로 구분하여 등록업체를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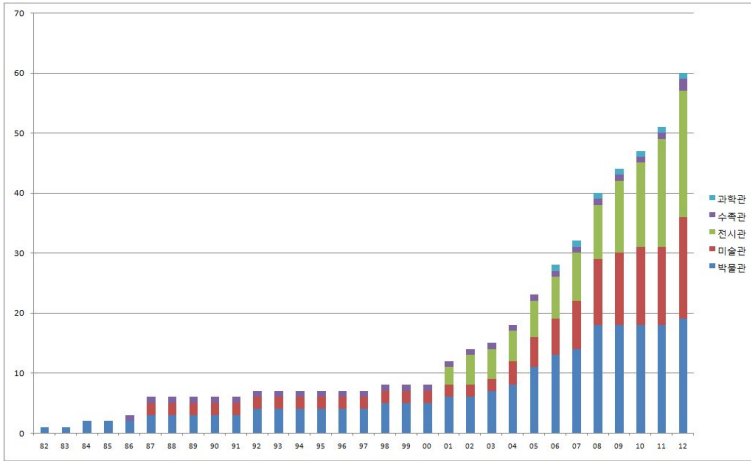
박물관은 관광진흥법 전문휴양업에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1종 박물관(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을 기준으로 하였다. 미술관은 관광진흥법 전문휴양업에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족관은 관광진흥법 전문휴양업에 수족관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그림 1> 관리주체별 개발과정

법의 제1종 수족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족관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2종에 해당하는 전시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등을 통칭하여 분류하였고, 과학관은 과학관 육성법 상의 과학관으로 등록된 경우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 초기에는 박물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공공에서 개발하는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의 경우에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수족관이 초창기에 설립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제1종 박물관의 형태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제2종 전시관류의 설립이 급증하였다. 전시관은 82㎡의 전시실에 60종 이상의 전시품만 있으면 등록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설립가능하다. 2012년 현재 박물관의 등록은 19개소 31.7%를 차지하고 있고, 미술관은 17개소 28.3%, 전시관은 21개소 35.0%, 수족관 2개소 3.3%, 과학관 1개소 1.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단일시설관광지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이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전시관이 급증하는 양상으로 전시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등록업종별 개발과정

Ⅲ. 제주지역 관광지 개발시기 구분

1. 개발시기 구분의 기준

제주지역에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현재위치에 최초로 설립된 198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기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시기별 구분의 첫 번째 기준은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설립 개소수의 증가동향이다. 최초설립일인 1982년부터 2012년까지 31년의 기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80년대 6개소에서 2012년 현재 60개소의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10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시점이 존재하며, 특징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시기별 구분의 두 번째 기준은 주요관광개발 계획의 수립이다. 이것은 국공립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설립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공립 관광지의 경우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관광개발계획의 검토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세 번째 기준은 관련법의 제·개정 사항의 변동이다. 법률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또는 진흥법을 제정하거나 폐기함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의 개발을 유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네 번째 기준은 설립된 관광지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관광지 개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던가,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들이 등장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기의 등장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가지 기준을 토대로 개발 시기를 분류해서 시기별 명칭을 부여하였다. 시기별 명칭은 발아기(發芽期:1982~1997년), 착근기(着根期:1998~2004년), 성장기(成長期:2005~2008년), 고도집적기(高度集積期:2009~2012년 현재)로 구분하였다.

2. 개발시기 구분과 특징

발아기(發芽期:1982~1997년)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 초창기로 볼 수 있는데, 16년의 기간동안 총 7개소의 관광지가 설립되어 매우 성장이 더디었던 단계이다. 그러나 발아기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의 싹이 발생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1973년)이 수립되면서 관광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지 개발이 중심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1984년 박물관법이 제정되고, 1987년 관광진흥법에 전문휴양업이 신설되면서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났고,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으로 인한 관광지 개발이 구체화 되었다.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고, 1992년 시행됨에 따라 제주지역에도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준비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는 퍼시픽랜드(수족관)를 제외하고는 제주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 개념의 박물관과 공원형태의 관광지가 주로 개발되었다. 발아기에는 제주의 민속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가 전체 관광지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착근기(着根期:1998~2004년)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제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995년과 1999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된 시기로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사립 관광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995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통해 박물관의 등록기준을 완화(2종 전시관 등의 등록 가능)하여 민간 사업자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만들었고, 1999년의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관광지 설립에 대한 욕구를 증대 시켰다. 1999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9개 인허가 처리를 간소화시킴으로서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활성화의 기반을 다진 시기로 볼 수 있다. 7년 동안 11개의 단일시설 관람형 관광지가 설립되어 연평균 1.6개소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발아기의 연평균 0.43개소에 비하여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1개소의 신규 관광지 중 8개소가 사립관광지라는 점은 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사립관광지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착근기의 또 다른 특징은 최초로 테마형 사립 박물관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주는 역사, 전통, 문화 등의 이미지와는 다른 각각의 테마가 살아있는 테마형 박물관 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관광지 형태의 태동이 시작되었다. 1998년 최초의 테마형 관광지가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도 이러한 성향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성장기(成長期:2005~2008년)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제주지역에서 설립 개소 수와 규모가 점차 성장하는 시기이다. 2003년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2004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통해 성장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의 핵심은 설립승인 및 등록권한을 문화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지사

의 정책기조에 따라 얼마든지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설립되고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가지고 왔다. 4년 동안 22개소의 관광지가 설립되었으며 연평균 5.5개의 신규관광지가 생겨난 것이다.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한 결과 그전에는 설립은 되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던 관광지들이 2006, 2007년에 대거 등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6> 제주지역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시기 구분

시기구분	개발계획	법적근거	특징
발아기 (發芽期) (1982~1997)	- 1973년 제주도관광중 개발계획 - 1985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 1984년 박물관법 제정 - 1987년 관광진흥법 제정 : 전문휴양업 신설 -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	- 전통적 개념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 공원 형태의 관광지 설립
착근기 (着根期) (1998~2004)	- 1997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	- 1995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 : 등록요건 완화, 1종과 2종 박물관 구분 - 1999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 박물관, 미술관 명칭 규제 삭제 :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의무화 시행 - 1999년 관광진흥법 개정 : 9개 인허가 처리 간소화	- 1998년 테마형 사립박물관 첫 등장 - 2001년 등록기준이 완화된 전시관 첫 등장
성장기 (成長期) (2005~2008)	- 2002년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2003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 사립박물관 설립 승인을 문화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 - 2004년 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권한을 문화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	- 2005년 테마형 국공립 박물관 등장 - 2006~07년 미등록 관광지들의 등록 증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의 다양한 업종이 설립 및 등록
고도집적기 (高度 集積期) (2009~2012)	- 2009년 제주 특별광역경제권 계획	- 2008년 관광3법 제주특별자치도에 일괄 이양 -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정 : 관광진흥기금 지원 근거 마련	- 2009년 기업형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제주에 등장 - 사립관광지 비중 급격한 증가

성장기의 특징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있다. 국공립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도 사립관광지와 유사한 테마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5년 설립된 서귀포 감귤박물관

을 시작으로, 천문과학문화관, 돌박물관, 해녀박물관 등 과거 역사, 전통, 문화 등의 주제에서 다양한 테마를 가진 국공립 박물관들로 질적인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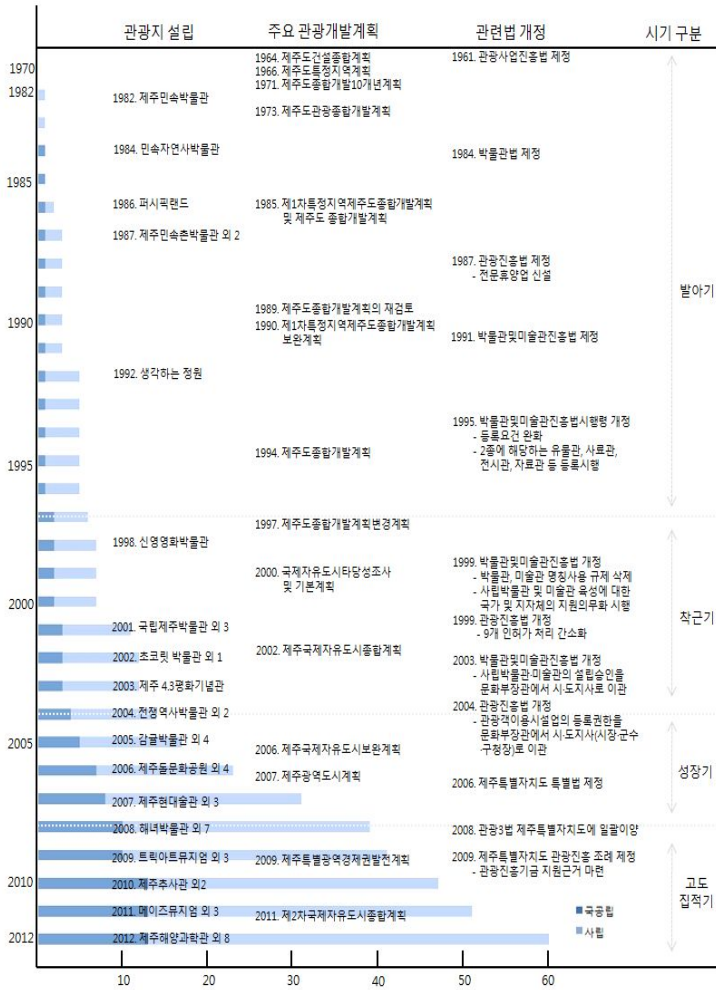
고도집적기(高度集積期:2009~2012년 현재)는 제주지역에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고도로 축적된 시기라 볼 수 있다. 2012년 현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집적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으로 인한 관광3법의 일괄이양이 시행된 시기로서, 관광3법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자 200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관광진흥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하여 민간의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4년간 20개소가 설립되었으며, 이중 사립 관광지가 18개소로 90%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사립관광지만 신규 설립·등록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여,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개발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완전하게 전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기업 중에서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를 두 개소 이상 개발하여 운영하는 기업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기업이 관광지를 추가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고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개발시기별 입지변화 분석

1. 입지현황과 표고

제주지역에 표고가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표고에 따라 환경, 식생, 토질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패턴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중 표고 200m 이하의 해안지역은 해안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아열대성 식생이 생장하고 있고, 수자원이어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표고 200~600m의 중산간지역은 온대성 활엽수와 상록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토질은 척박하고 삼투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용수가 결



<그림 3>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시기 구분

핍되어 있는 지역이다²⁴⁾.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중산간지역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 지역에 지하수 오염,

24) 부만근·여강림·윤양주·김창중·김석준, 「제주도 중산간유휴토지의 개발·활용방안」, 『사회개발연구』 2, 1986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지역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입지결정요인 중 표고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간분석 프로그램인 Arc Map 9.3 프로그램과 구글 Eart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관광지별 표고를 추출하였다.

제주지역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평균 표고는 153.2m로 나타나 중산간의 기준인 200m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고가 가장 낮은 연구대상지는 6.0m로 해안에 매우 인접한 지역이지만, 표고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지는 452.0m로 중산간 지역에서도 산간지역에 가깝게 입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연구대상지의 표고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거리(m)	6.0	452.0	153.2	105.0	132.4

구간별 입지개소수를 확인해 보면 표고 50m 미만의 해안인접형 지역에 16개소가 입지해 있으며, 평균고도는 29.13m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간 지대인 200m 이상 고도에는 19개소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1.7%의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중산간 지대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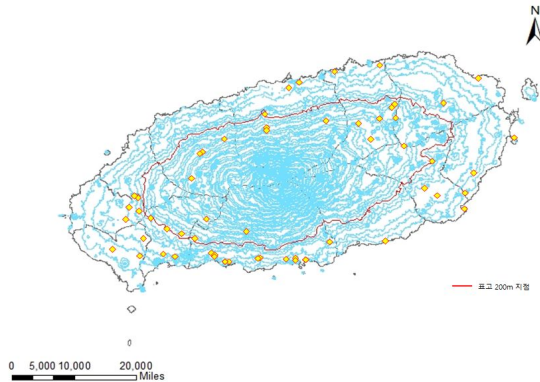
<표 8> 표고 구간별 입지 개소수

구간 거리	개소수	평균 고도	비중
0~50m 미만	16	29.13	26.7
50~100m 미만	12	74.92	20.0
100~150m 미만	11	121.4	18.3
150~200m 미만	2	172.0	3.3
200~250m 미만	5	218.0	8.3
250~300m 미만	4	268.25	6.7
300~350m 미만	2	321.5	3.3
350m 이상	8	417.38	13.3

2. 개발시기별 표고변화

제주의 지형적 특성상 연구대상지의 표고를 분석하면 제주전체에서 어떠한 형태로 입지가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는 초창기에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해안인접지역에 개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점차 중산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발아기에는 평균고도는 53.43m에 불과하여 해안인접형 입지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착근기에는 163.09m, 성장기에는 157.18m, 고도집적기에는 178.15m의 평균고도가 나타난다(표 9 참조). 관광단지로서 개발된 중문관광단지에 입지한 관광지들을 제외하면 입지고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표고를 기준으로 입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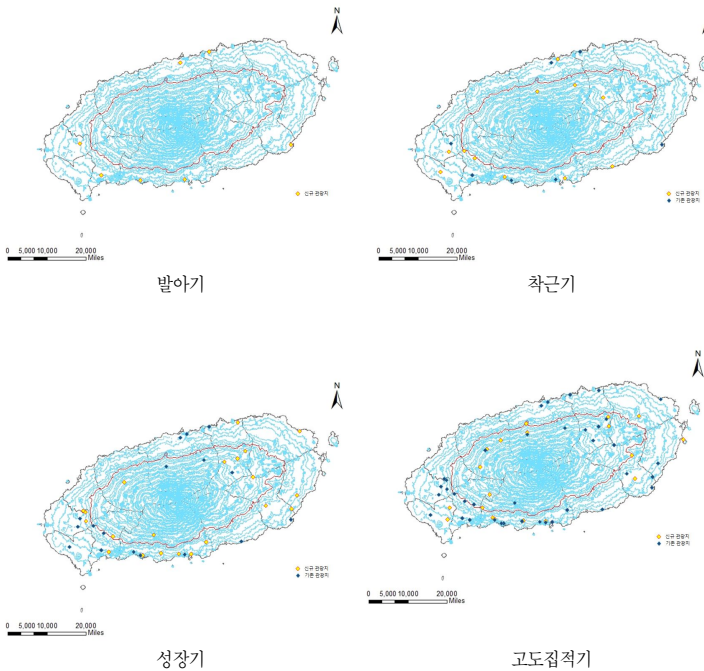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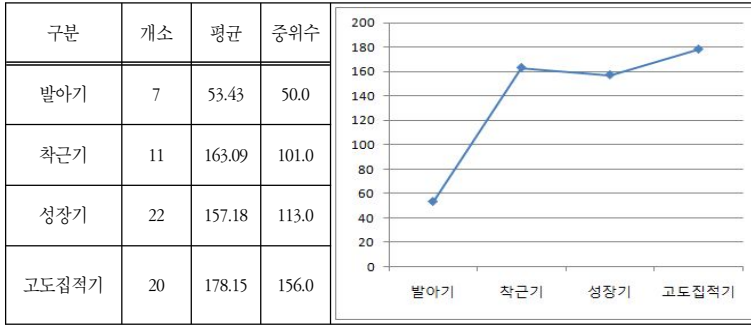
<그림 4> 표고 200m 이상지역과 연구대상지 입지

표고 200m이상의 중산간 지역에 개발된 관광지 개소수를 살펴보면, 발아기에는 0개소 이던 것이 착근기에 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성장기에 7개소, 고도집적기에 9개소로 증가하였다. 고도집적기에 개발된 총 20개소의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중 45%가 중산간 지역에 개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고 200m이상의 중산간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중산간지역으로 입지가 이동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조례」의 중산간지역 개발행위 규제 보다 다른 어떤 제도나 입지요인에 의해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9> 개발시기별 표고 변화



<그림 5> 개발시기별 신규관광지 입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주의

특징적인 조례상정이 가능한 시기인 고도집적기 시기에 관광지 입지표고의 평균이 높아지고, 중산간 입지개소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조례」법·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개발 예정인 관광지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중산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적용시킬 것인지, 개발에 대한 일반적 적용에서 중산간지역에 대한 기준을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이 활성화 되어 있는 제주지역의 관광지 개발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 관광지 입지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은 관광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수많은 관광지들이 개발되어오고 있지만, 관광지의 개발에 있어 입지선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취약하고, 입지변화에 대한 실제적 검증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기 구분의 첫 번째 기준으로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의 설립 개소수의 증가동향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 기준은 주요관광개발 계획의 수립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관련법의 제·개정 사항의 변동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네 번째 기준으로 설립된 관광지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에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처음 설립된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발아기(發芽期:1982~1997년), 착근기(着根期:1998~2004년), 성장기(成長期:2005~2008년), 고도집적기(高度集積期:2009~2012년 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발아기(發芽期:1982~1997년)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 초창기로 볼 수 있는데, 16년의 기간동안 총 7개소의 관광지가 설립되어 매우 성장이 더디었던 단계이다. 그러나 발아기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의 싹이 발생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1973년)이 수립되면서 관광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지 개발이 중심을 이루었던 시

기였다.

착근기(着根期:1998~2004년)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제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995년과 1999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된 시기로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서 사립 관광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성장기(成長期:2005~2008년)는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제주지역에서 설립 개소 수와 규모가 점차 성장하는 시기이다. 2003년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2004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통해 성장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고도집적기(高度集積期:2009~2012년 현재)는 제주지역에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가 고도로 축적된 시기라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으로 인한 관광3법의 일괄이양이 시행된 시기로서, 관광3법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자 200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관광진흥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하여 민간의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발아기, 착근기, 성장기, 고도집적기의 시기구분에 맞추어 입지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단일시설관람형 관광지는 초창기에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해안인접지역에 개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점차 중산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고의 고도가 시기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광지가 기존 입지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교통 접근성, 수송비 등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고 200m~600m 사이의 중산간지역의 개발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대한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행 전 검토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중산간지역으로의 접근이 증가하고, 중산간지역에 입지하는 관광지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지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하에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규모 관광지에 해당되는 단일시설관람

형 관광지의 경우 법적인 특혜 및 지원을 통하여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은 공간적 범위에서는 법제도적 한계치인 중산간지역을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표고 200m~600m까지의 단순한 공간적인 규제보다는 마을 지하수와의 거리, 생태계파괴 가능성, 개발로 인한 위해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효율적으로 지역을 보존하면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행정 개편(안) 연구』, 2011.
- 김영표, 「관광지 수명주기 연구 - 1962~2009년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의 시기구분론」, 『역사와 실학』 13호, 1999.
- 김태환, 「자동차 부품산업의 공간적 재구조화와 입지패턴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2(3), 2007.
- 문화관광부,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2007.
- 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2011.
- 백기영, 「근현대 한국 도시계획사 시기구분론」, 『영동공과대학교 연구논업』 1(1), 1995.
- 부만근·여강립·윤양주·김창중·김석준, 「제주도 중산간유휴토지의 개발·활용방안」, 『사회개발연구』 2, 1986.
- 부만근, 『제주지역개발사』, 제주발전연구원, 2012.
- 송경언,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 문제와 대응전략」, 『제주도 연구』 22, 2002
- 송재호, 『제주관광의 이해』, 도서출판 각, 2002.
- 양재섭·김정원, 「서울 대도시권 기업본사 입지변화와 이전동향 분석 : 1990 - 2003 - 3000대 기업본사를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8(2), 2007.
- 유세종, 「중국현대문학사 시기구분론」, 『중국학연구』, 6, 1991.
- 이삼수·이현주·김태균·김선우, 「산업단지 정책 및 입지변화 특성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4), 2013.
- 이창희, 「한국의 박물관 현황과 박물관법」, 『입법조사월보』 140, 1984.
- 정석중·이미혜, 『관광개발론』, 서울 : 대왕사, 2002.
- 주성재,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공간적 집적 특성 :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로서 서울 강남지역의 등장」, 『대한지리학회지』, 41(3), 2006.
- 최석호 「여가와 관광연구를 위한 시기구분」,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최승엽, 「강원지역 구석기유적의 입지유형과 시기구분 연구」, 『선사와 고대』, 33, 201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가칭)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 200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2012.
- 任和淳, 『近代韓國における温泉觀光地の發達過程に關する史的研究』, 東京工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Conlin, M. V and Baum, T., *Island Tourism: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Wiley & Sons, West Sussex, England : New York. 1995.
- Hall, C .M., *Tourism Planning: Policies, Processes, Relationships*, London : Prentice – Hall, Inc., 2000.
- Pearce, D.,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Wiley & Sons, New York., 1995.
- Mill. Robert C., Alastair M. Morrison, *The Tourism system* 2nd edition, Prentice – Hall, Inc., 1992.
- Alan Fyall, Brian Garrod, Anna Leask, and Stephen Wanhill, *Managing visitor attractions*, – second edition –, ELSEVIER Ltd., 2008.
- ICOMOS, *Tourism at World Heritage cultural sites: The Site Manage’s Handbook*, 2nd edition –., 1993.

Abstract

A Study about division of period and location change for development of tourist site in Jeju Island

Nam, yoon – seob*·Lim, Hwa – soon**

Jeju Island shows most active tourist industry in Korea. And tourist sites have been developed continuously along with policy to activate tourism. But the reality is that legal ground about selection of location is weak in development of tourist site and actual proof about location change is poor.

This study divided development period of tourist attractions in Jeju Island and analyzed process of location change based on location of the middle mountainous areas(areas between 200m and 600m in altitude). Middle mountainous areas is a unique classification in Jeju, designated in regulations of urban planning for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tourist sites of unit facility viewing type for which location is comparatively, easily decided by opinions of people related to business.

As a result, development period of tourist attractions for no complex facility viewing type in Jeju area was divided to Germination Period(1982~1997),

* Researcher, Jeju national University Tourism,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 – mail : xiaonan79@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e – mail : limhs63@dreamwiz.com

Rooting Period(1998~2004), Growing Period(2005~2008), and High integrated Period(2009~2012 present). Based on investigation of location changes in line with period division of Germination Period, Rooting Period, Growing Period, and High integrated Period, tourist site of unit facility viewing type was developed in areas near coast centered on coastal line in the beginning. But it was identified that gradually it is moving to the middle mountainous areas.

Key Words : tourist site, division of period, location change, Jeju Island

교신 : 임화순 690-4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limhs63@dreamwiz.com)

논문투고일 2014. 01. 10.

심사완료일 2014. 01. 28.

게재확정일 2014. 01. 31.